

## II. 영역별 출제 방향

### □ 1교시 : 국어 영역

#### 1. 출제의 기본 방향

국어 영역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기초하여 '대학 수학(修學)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목표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 평가 문항은 국어 영역의 출제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개발하였다.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기초하여 출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EBS 수능 교재를 연계하여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2. 출제 범위

국어 영역은 '화법과 작문', '언어'(언어와 매체' 과목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 등 출제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 하되, 폭넓고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그에 따라 지문의 소재를 특정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두루 취하였다.

### 3. 문항 유형

국어 영역에서 출제된 대표적인 문항 유형과 하위 평가 영역별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인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서 주요 학습 활동으로 등장하는 ‘방송 인터뷰’와 ‘자아 성찰의 글쓰기’를 문제화한 4~7번 문항, ‘독서’ 과목에서 중요한 학습 활동으로 설정하고 있는 ‘주제 통합적 독서(상호텍스트성)’를 문제화한 20~25번 문항, ‘문학’ 교과서의 중요 학습 단위 중 하나인 ‘문학의 수용과 생산’ 등의 학습 내용을 문제화한 38~42번 문항 등이다. 이 중 4~7번 문항은 ‘산림 치유’와 관련된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와 이를 시청한 학생이 작성한 산림 치유 체험 수기를 문제화하여, 화법과 작문 활동을 통합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예술의 본질’을 소재로 한 20~25번 문항은 ‘예술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가) 글과 ‘예술 작품의 비평 방법’을 다룬 (나) 글을 지문으로 제시하여,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글을 대조하며 읽고, 독서의 결과를 비판적·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윤선도의 ‘만흥(漫興)’과 이덕무의 ‘우언(迂言)’을 엮은 38~42번 문항은 연시조와 고전 수필을 함께 제시하여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다양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이러한 문항 유형들은 과목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을 수능 평가 상황에 맞게 변형한 문항들로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하위 평가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면 ‘화법’의 경우, 총 5개 문항(1~3번, 4~5번)을 출제하였다. ‘화법과 작문’ 중 화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법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화법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뽕은맛의 성분과 효능에 대한 발표’를 소재로 한 문항(1~3번), ‘산림 치유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 인터뷰’를 소재로 한 문항(4~5번) 등을 출제하였다.

‘작문’의 경우, 총 5개 문항(6~7번, 8~10번)을 출제하였다. ‘화법과 작문’ 중

작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문의 본질과 원리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작문 상황에서의 실제적인 작문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산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기’를 소재로 한 문항(6~7번), ‘인포그래픽에 대한 정보 전달 글쓰기’를 소재로 한 문항(8~10번) 등을 출제하였다.

‘언어’의 경우, 총 5개 문항(11~15번)을 출제하였다. ‘언어와 매체’ 중 언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본질, 국어의 탐구와 활용, 국어생활 성찰’ 등을 평가 목표로 하여, ‘음운의 변동’을 소재로 한 문항(11번), ‘사전 표제어의 불임표’를 설명한 지문을 바탕으로 한 문항(12~13번), ‘품사와 문장 성분’을 소재로 한 문항(14번), ‘국어 자료의 탐구’를 소재로 한 문항(15번) 등을 출제하였다.

‘독서’의 경우, 총 15개 문항(20~25번, 26~30번, 34~37번)을 출제하였다. 독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의 본질과 방법, 다양한 분야와 시대에 따른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독서 능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예술의 본질과 예술 비평의 방법’을 소재로 구성한 인문 지문(20~25번), ‘행정입법의 개념과 유형’을 소재로 한 사회 지문(26~30번), ‘항(抗)미생물 화학제’를 소재로 한 과학 지문(34~37번) 등 다양한 분야와 제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문학’의 경우, 총 15개 문항(16~19번, 31~33번, 38~42번, 43~45번)을 출제하였다. 문학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과 삶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 목표로 하여, 이기영의 ‘고향’을 소재로 한 현대소설 지문(16~19번), 작자 미상의 ‘심청전’을 소재로 한 고전소설 지문(31~33번), 윤선도의 ‘만홍’과 이덕무의 ‘우언’을 소재로 한 고전시가·수필 복합 지문(38~42번), 김수영의 ‘사령’과 김혜순의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을 소재로 한 현대시 지문(43~45번) 등 현대와 고전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을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 4. 문항 출제 시의 유의점 및 강조점

- 교육과정상의 중요도, 사고 수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점(35문항), 3점(10문항)으로 차등 배점하였다.
-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글에 대한 독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추론적·비판적·창의적 사고를 활용하여 풀 수 있는 문항을 중점적으로 출제하였다.
- 문항의 형식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평가 목표에 충실하게 출제하고자 하였다.

#### 5. EBS 연계 예시 문항

국어 영역에서 연계하여 출제된 문항을 EBS 연계 교재 문항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문항 1】 국어 20~25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다.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 전제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자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과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진정된 예술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 대상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벤의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20세기 중반에,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그것들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는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이다.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결보기에는 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이므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대변한다.

다른 하나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 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 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하므로 예술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평가적 ㉢ 이론들과 달리, 디키의 견해는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충분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나)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작품을 비평하는 목적과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예술 작품에 대한 주요 비평 방법으로는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 맥락주의 비평은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역사적

**(중략)**

20. (가)와 (나)의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③ 화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여 서로 간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21.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을 근거로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②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을 통해 예술 작품의 여부를 판단한다.
- ③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 ④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 ⑤ 특정한 사회 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 작품으로 판단한다.

22.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②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예술가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③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예술 작품입니다.
- ④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예술 작품이라는 당신의 주장은 저의 작품 「샘」 외에 다른 변기들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⑤ **예술 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 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사용하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략)**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은 어떤 활동인가? 여러 철학자들과 예술 이론가들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 왔고, 그중 하나가 이른바 ‘모방론’이다. 모방론은 예술이 결국 자연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이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나은 점은 바로 모방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모방적인 동물이며, 모방에 의해 처음으로 배우게 된다.’라며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술이 형상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있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개연성을 지니며 시대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획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모방론은 서양에서 예술을 규정하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 왔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헤겔은 자신의 저서인 『미학 강의』에서 모방론이 예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모방론을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첫째, 헤겔은 예술이 외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모사(模寫)하려 하더라도, 표현 수단의 한계로 인해 모사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이 아무리 높은 완성도를 지닌다 해도 개별적이고 특수한 표현 수단을 통해 원본인 자연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애초부터 없다고 생각하였다. 예술을 자연에 대한 완벽한 모방으로 생각한다면 예술이 속임수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예술 활동 역시 불필요한 수고가 되거나 일시적이고 헛된 유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헤겔은 모방이 기술적 숙련성을 얻기 위한 방편일 뿐 자유로운 정신 활동인 예술 행위 자체는 아니라고 **㉔**보았다. 그는 인간은 모방보다는 스스로 만들어 낸 것에 대해 더 큰 기쁨을 갖는다고 보고, ‘인간은 흉내 내는 재주를 완성하는 것보다 망치와 못 등을 발명하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중략)**

20002-0055

**0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방론의 이론적 발달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 ② 예술의 한계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예술을 규정하는 상반되는 두 이론을 제시하고 각각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모방론에 대한 특정 인물의 비판을 제시하고 그의 입장이 지닌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⑤ 모방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절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략)**

**【예시 문항 2】 국어 38~42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영하여,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외부 세계의 일반적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이념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양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문학적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 작품에서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 자기와 외부 세계와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셋째의 경우는 자기가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친화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 거리가 드러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뒤짐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늙들은 윤노나 훈다마는

㉡ 어리고 하얌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1수>

보리밥 뭇늬를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곳 뭇?의 슬까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보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라

말슴도 우움도 아너도 몰내 도하호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라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뚝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르실사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훈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덕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회라 호시도다 <제5수>

강산이 도타 훗들 내 분(分)으로 누연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갑고자 호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제6수>

- 윤선도, 「만흥(漫興)」 -

(다)

산림(山林)에 살면서 명리(名利)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부끄러움[大恥]이다. 시정(市井)에 살면서 명리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부끄러움[小恥]이다. 산림에 살면서 은거(隱居)에 마음을 두는 것은 큰 즐거움[大樂]이다. 시정에 살면서 은거에 마음을 두는 것은 작은 즐거움[小樂]이다.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나에게겐 그것이 다 즐거움

**(중략)**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제2수>에서는 구체성이 드러나는 소재로, <제3수>에서는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
- ③ <제2수>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이 <제5수>에서 해소되었음이 영탄적 표현으로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의 현재에 대한 긍정이 <제4수>에서의 역사에 대한 부정으로 바뀌며 시상이 전환된다.
- ⑤ <제3수>에 나타난 정서적 반응이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구체화된다.

39.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수 간’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늙들’의 생각을 병치하여 화자와 ‘늙들’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② ‘바회 곳 뭇?’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과 ‘너나쁜 일’을 대비하여 세상일과 거리를 두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③ ‘님’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뵈’의 의미를 부각하여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소원한 관계가 유지된다.
- ④ ‘님천’에서의 ‘한흥’이 ‘삼공’이나 ‘만승’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여 화자와 ‘님천’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 ⑤ ‘강산’ 속에서의 삶이 ‘님군’의 ‘은혜’ 덕택임을 제시하여 화자와 ‘님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와 외부 세계 사이의 친화적 관계가 형성된다.

40.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나’는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를 고려하여 삶의 유형을 나누고 있다.
- ③ ‘산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다.
- ④ ‘큰 부끄러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 사느냐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모두 서로 다르다.
- ⑤ ‘명리’를 ‘부끄러움’에,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킨 것으로 보아 ‘나’는 ‘은거’의 가치를 ‘명리’의 가치보다 높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략)**

EBS 교재 『수능특강 - 문학』 49~51쪽 1~4번 세트의 지문과 문항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론 늑들은 읊는다 흔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흐노라 <제1수>

보리밥 꽃늑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 긱 ㉡의 슬꺾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씀도 우음도 아녀도 몬내 도하흐노라 <제3수>

누고셔 삼공(三公)도곤 낫다 흐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흐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 낙뎡터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업세라 <제4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라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흔 일도 아니 맛더  
 다만당 ㉢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디희라 흐시도다 <제5수>

강산(江山)이 도타 흔들 ㉣내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자 흐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제6수>

-윤선도, 「만흥(漫興)」

(중략)

## 0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만홍」은 윤선도가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에서 기거하며 지은 노래이다. 윤선도는 정치 현실에서 잇따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번잡한 현실에 대한 번뇌를 씻고자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에서 은둔하는 삶에 대해 “경국제민(經國濟民)은 일찍부터 숭상한 바요, 세상을 등지고 은둔함은 본래 기약한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은거할 때에는 마땅히 세상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만홍」에는 자연 지향 의식과 함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경세 지향 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 ① <제1수>에서 ‘그 모른 늙들’은 혼탁한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을 지향하려 한 화자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제2수>에서 ‘그 나쁜 녀나쁜 일’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화자가 자연에서 은둔하며 지내면서 경세 지향 의식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제4수>에서 자연에서의 삶에 대해 ‘만승이 이만하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가치와 비교하여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5수>에서 ‘드토리 업슨 강산’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으로 번잡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연 지향 의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6수>에서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게 되어 이를 갚고자 하나 ‘히을 일’이 없다고 토로 하는 것은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